

불자 세상보기

스마트 시대, 승가부터 스마트하자



이백구 전남대 대학원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최근 청암사 승가대학에서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였다. '승가대학에서 웬 스마트캠퍼스?' 할 수도 있지만 분명 이것은 승가교육의 혁명이자 변혁이다. 문제 제기는 간단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소통하고 대화한다. 일명 소셜웹(Social WEB) 세대이다. 우리 강원외의 학인 스님들이 승가대학 과정 중에 이러한 스마트 세대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과연 강원 졸업 후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청암사 승가대학·율원의 스마트 캠퍼스는 '스님들이 아이패드를 잘 사용한다'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청암사 승가대학·율원 스님들이 사회에 나와 대중과 소통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승가대학과 전 세계가 소통 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겠다.

'아이들이나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학인 스님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는 지금 스마트 세대들과 소통은 불가능 할 것이며 그러한 불통은 한국불교의 고립을 자초할지도 모른다.

청암사 승가대학·율원 스님들이 스마

트캠퍼스를 구축한 후 모두 아이패드2를 지급받아 스마트 소셜에 입문하게 되었다. 한 스님이 "방학기간에 서울에 올라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스님이 아이패드2를 가지고 자료를 검색하니 모두 의아하게 쳐다보는 눈길이 재미있었다"라는 말을 했다. 이것은 대중들의 인식에 스님들은 산속에서 묵묵히 치시면서 열불만 하는 분들이라는 그들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님들의 모습과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수양하시는 스님이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스님, 스마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중들과 대화하시는 스님들도 계시다는 것을 대중들도 인식하게끔 해주어야 한다.

'청암사승가대학스마트캠퍼스'는 누구에게 보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스님들이 적극 의견을 피력하고 사회적 모범을 보이는 것이 현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바세계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청암사 승가대학·율원에서 공부하셨던 스님들이 졸업하신 후 대중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때 대화에서 뒤처지지 않고 적극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감회가 깊었다.

스마트캠퍼스가 청암사 승가대학·율원에서 오픈 된 후 스님들은 학인 스님들간의 소통이 원활해 졌다고 했다. 승가대학 특성상 각 학년별 스님들의 소인이 있고 바쁘시기 때문에 학년별로는 대화가 있으나 선후배 간에는 소통이 적었다고 한다. 스마트캠퍼스가 도입된 후 소셜웹 기능을 통하여 자유롭게 학년을 넘어서 스님들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제토의도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바로 이것이 소셜웹(Social WEB)의 소통인 것이다.

대중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스님들 간에 소통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가끔가다 종단내의 어떤 이슈를 보면 서로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도 많은 것 같다. 이제 강원에서 공부하는 단계에서부터 소통을 가르쳐야 하고 몸소 소통을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캠퍼스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러한 소통을 몸소 체험한 스님들은 대중들과 교감도 어떤 형식의 교감인든 충분히 몸과 마음으로 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소셜웹(Social WEB)이 바다 속에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세상 만인들의 대화가 담겨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社說

'상생과 공존'의 실천 따라야

남북 불교계의 노력이 5·24대북제재 조치 후 첫 만남으로 회향했다. 대장경관각 1000년을 기념해 남북이 함께 묘향산 보현사에서 9월 5일 합동 법회를 봉행한 것이다.

행사에서, 또 방북단의 방북기간 중 화해와 협력, 단합과 연대, 평화와 통일이 언급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봉행사와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위원의 환영사, 남북이 함께 읽어 내려갔던 고분문과 합동발원문 등은 물론이고 남북 관계자들의 대화에서 수없이 반복됐다. 이 단어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 넘도록 '남북' 하면 '통일'이 연상되듯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라야 하고 해야 하기에 민족의 공익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다. 분단이라는 공익의 과보를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의 과제, 민족의 아픔을 청안함으로써 되돌릴 묘법인 까닭이다.

우리는 무척 오랫동안 이 말을 구

호로만 되풀이해 왔다. 그러는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화해와 협력은 꿈수과 야합으로, 단합과 연대는 패거리와 끼리끼리로 변질됐다. 평화는 강자가 진 자)에 의해 약자(못가진 자)가 침묵하는 상태를, 통일은 개성이 말살된 획일을 뜻하게 돼버렸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상생과 공존'이라는 대북교류 원칙을 천명했다. '상생과 공존'은 생경한 구호의 나열 속에 진부해져 가던 남북관계에 물수체비 같이 푹푹 누는 단어가 아닐 수 없다. 다원성체계도 조계종은 남북이 화합(vocabulary)에 단어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본사주지회의 등을 통해 대북지원 사업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자칫 '피주기'라는 비판과 좌절에 빠지지 모를 이 계획이 상생과 공존의 진정한 방법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래도 허겁에 맴돌고 있어 손끝에 새겨지길 바란다. 세상은 실천하는 자에 의해 바뀐다.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

남북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이 된 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제2기 화랑리더십 아카데미가 열렸다. 행사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은 "사회 화합과 화평을 위해서는 각자의 치열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런 가운데, 前 거조암 주지 현스님이 은혜사 A스님을 출가 이후 승려 신분으로 혼인한 사실이 있더라 폭로한 사건이 있었다.

물론 은혜사 A스님의 혼인사실은 진정을 접수한 호법부가 밝힐 일이 다. 당사자들에게 종헌종범에 어긋남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할 일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떠나 범인들의 입

에 오르는 동안이라도 조계종 출가자 전체의 문제로 확대·평가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설사 A스님의 혼인사실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해도 그것이 실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 아니고, 아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우 스님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절대적·근원적 사고에 입각한 행위가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말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조계종 구성원 각자가 독신비구의 그늘에서 나태하고 방만한 출가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성하고 채신할 계기가 된다면 '날마다 좋은 날'이다.

사부대중 칼럼

아이를 보면 어머니를 알 수 있다



강선희 중앙신도회 교육위원

참 많이 변했다.

필자가 학교를 다니던 때 버스를 타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방을 다 받아안아야했다. 물론 뒷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린아이들이 타면 오래 귀여워하는 행동을 취하고 아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런 현상은 자칫 시뻐터리가 되고 법정까지 가기도 한다.

사람의 인심만 변한 것이 아니다. 자연 환경은 기복을 갱신하며 사납게 가고 있다. 오랜만에 찾은 해운대는 필자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예전의 모래사장엔 거의 없어지고 그 자리는 물이 가득했으며, 여름 마지막 대목순님을 맞이 위해 외부에서 모래를 퍼 날라 붓느라 밤을 새우고 있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의 눈이 녹아들면서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고 따라서 태풍이 거세지면서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태양열과 폭풍과 비로 지구는 날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재앙의 회오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천안통을 가진 신통력자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심신이 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하셨다. 다시 말해 마음을 잘 써야 몸이 건강하고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으며 결국은 중생들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한때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가야할지 막막할 정도로 윤리도 덕과 질서 그리고 자연환경이 파괴된 것 같다. 필자는 그 문제와 해답을 늘 가정에서 찾는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면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어머니'다.

'어머니'는 그 집의 바깥이고 거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어떤 '어머니'와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여성들에게 바른 호흡과 함께 마음이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늘 들여다보고 중심이 흔들리지 말것을 강조한다. 어떻게 마음의 중심(마음의 힘)을 잡을 것인가?

강한 자아집착과 그로 인한 끝없는 욕망으로 지금 우리 몸통은 온갖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 욕망은 여러식음과 증오를 낳고 부정적인 변뇌는 우리의 몸을 장악하면서 숨길을 방해 한다. 호흡이 제대로 들고나지 못하면 몸을 병투성으로 몰아가고 결국은 지구의 숨통까지 조여가게 된다.

호흡은 우리의 몸과 의식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바른 숨(에너지)은 그대로 영혼의 결정체이며 의식의 척도를 가능케 한다. 막힌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가 숨만 제대로 쉴 수 있어도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다. 숨을 제대로 쉬면 몸이 이완되고 편안한 몸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전환해 주면서 여유가 생긴다. 또 깊은 호흡으로 늘 자신의 안을 들여다 볼 줄 알 때 마음이 고요해 지고 흔들림이 없다. 이렇듯 중요함이 없을 때, 남편과 자식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인다. 보아야 수정하고 변화가 가능하다.

'어머니'의 마음이 평화롭고 이타심이 있다면 아이들도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해와 사랑, 양보와 누군가를 늘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며, 그렇게 사는 삶은 언제나 축복받은 계다. '어머니'가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더욱 튼튼할 것이며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뒤따라 올 것이다.

어머니들이여! 숨을 제대로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라. 그런 다음 내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라. '어머니'의 변화는 그대로 가정의 변화이고 사회의 발전이다.

마음을 잘 써야 건강하고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어

가정은 마음씀씀이 배우는 곳

어머니가 가정을 바로 세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는가?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들을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생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생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지난 28년간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해 온 "DX-707 마이크"를 사용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DX-707 명품 마이크"는 40대 만을 추가 제작을 끝으로 부처님전에 다시는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남은 재재가 다 되었기 때문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라지는 "名品 DX-707 마이크"를 마지막으로 구입해, 소장을 원하시는 스님 35분의 주문을 받습니다 세상에 단 한번밖에 없을 DX-707 마이크를 구입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 주문방법: ① 입금 후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를 Fax, 전화, 등으로 알려주세요 ② 입금 순서대로 발송 해드립니다 ③ 스님 35분께만 공급 해드립니다 송금 우리은행 구 좌: 1002-610-963886 예금주: 김민화 대 금: 25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경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